"실적 호전·풍부한 배당…조용한 주총"

광주·전남 12월 상장사 이번주부터 주주총회
일부 감자 기업 주주들 반발로 마찰 일 수도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올해 주총은 기업들의 실적호전과 풍부한 배당 등으로 인해 주주들과의 별다른 마찰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업들은 감자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대표이사 등을 재선임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CEO가 교체되는 돌발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는 지역내 12월 결산 상장법인 23개사 가운데 27일 현재 정기 주총일을 공시한 기업은 17개사이고 아직까지 주총일을 결정하지 않은 기업은 6개사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정기 주총을 실시해야 한다.

주총은 28일 순천의 성원파이프를 필두로 다음달 2일 조선내화, 9일 광주신세계, 16일 금호산업·금호타이어·보해양조·부국철강 등 6개사, 23일 고려시멘트·엠앤에스·동아에스텍 등 6개사, 29일 해원에스티까지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주총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집중돼 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본사에서 주총을 실시하지만 금호산업과 디지털텍은 주주들의 배려차원에서 본사가 아닌 서울에서 개최한다.

지역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대체적으로 좋은데다 보통주 1주당 금호산업 450원, 금호타이어 300원, 화천기공 1천원, 조선내화 1천300원 등 배당액(시가배당률 2~4%)도 높아 주주들의 표정은 대체적으로 밝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주총일을 공시하지 않은 로케트전기의 경우 지난해 말 8대 1 감자를 결정해 주총일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주총에서 고려시멘트, 보해양조, DSR제강, 행남자기 등이 대표이사를 재선임할 예정이고 최근 미주제강이 최대주주로 올라선 성원파이프는 미주제강측 임원들을 대거 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또 차량용 알루미늄휠 제조업체인 엠앤에스는 알루미늄 나노복합신소재 및 탄소섬유 제조를 정관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가드레일 생산업체인 동아에스텍도 철강재설치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비상장기업 가운데에서는 광주은행이 다음달 26일 주총을 열고 3년 임기의 차기 은행장을 인준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주주총회 일정

회사명	일시
성원파이프	2007년 2월 28일
조선내화	3월 02일
광주신세계	3월 09일
금호타이어	3월 16일
화천기공	3월 16일
금호산업	3월 16일
보해양조	3월 16일
화인케미칼	3월 16일
부국철강	3월 16일
행남자기	3월 19일
대유디엠씨	3월 23일
엠앤에스	3월 23일
고려시멘트	3월 23일
동아에스텍	3월 23일
DSR제강	3월 23일
디지털텍	3월 23일
광주은행	3월 26일
해원에스티	3월 29일

작년 리콜 31% 감소

134건…자동차 77건으로 57% 차지

지난해 결함이 있는 물품이나 용역을 교환하거나 환급하는 등의 리콜이 전년보다 31% 정도 감소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134건으로 전년의 194건보다 30.9% 줄었다. 리콜 건수는 2001년 66건, 2002년 103건, 2003년 74건, 2004년 168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리콜이란 소비자에게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이를 수거해 수리·교환·파기·환급해 주는 조치다.

지난해 리콜을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가 77건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식품 45건, 노트북 배터리 등 기타 생활용품 10건 등이었다.

자동차에 대한 리콜은 전년의 137건보다 43.8% 줄었고 국산 자동차에 대한 리콜은 전년의 69건에서 23건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리콜은 전년의 68건에서 54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성질별로는 업체의 자발적 리콜이 125건으로 93.3%에 달해 대부분의 리콜이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작년 해외주식투자 219% 늘어

12월말 기준 투자 잔액 193억달러

지난해 전세계적인 주가 상승에 편승해 기관 투자가의 해외 주식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중 기관 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기관 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549억2천만달러로 2005년말에 비해 54.4%(193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식 투자 잔액은 2005년말 50억6천만달러에서 작년말 161억4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219.2%나 급증했다.

해외 주식 투자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전세계적인 주가 상승 분위기 속에 자산운용사의 해외 투자상품 판촉과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신흥시장국 주식에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권 투자 잔액은 171억1천만달러에서 238억4천만달러로 39.3%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경총 정기총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염홍섭)는 2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 27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응서 남해종합개발 회장이 부회장, 임화규 한국번디 광주공장장과 조우석 신풍 회장이 이사에 선임됐다. 또 사랑방신문사가 제 8회 노사협력대상을, 박창민(금호타이어)씨 등 9명이 노사협력 유공근로자 표창을 받았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인접 대지와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 주택 지을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은 일조권을 고려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으로 돼 있어 8m 높이의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2m 이상의 간격을 둬여 한다.

건교부는 다세대주택 이격거리 기준이 건축물 높이에 상관없이 1m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향상돼 다세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어서 조례 개정이 이뤄진 뒤에 실제로 시행된다.

다가구·다세대주택에 함께 적용되는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해 생기는 공간)규정도 완화된다. 즉 '1층 전부'를 필로티로 설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에만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해 주던 것을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때에도 층수에서 제외해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 소폭 감소

9억1천만달러·15억9천만달러…6%·2.4% 감소

고유가, 환율하락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소폭 감소해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1월중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은 각각 9억1천800만달러, 15억9천700만달러로 전월대비 6%, 2.4%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승용차(2억7천400만달러), 반도체(2억8천500만달러), 타이어(7천100만달러), 냉장고(6천900만달러)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전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유기 및 무기화합물(2억8천300만달러), 철강판(2억3천100만달러), 인조플라스틱 및 제품(2억1천900만달러), 선박(2억3천900만달러) 등이다.

1월중 무역수지는 광주는 4억9천900만달러 흑자로 지난 2003년 4월 이후 4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전남은 5억3천200만달러 적자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하나銀 하남공단지점 개설

하나은행은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내 3번도로 입구에 하남공단지점(지점장 김재옥)을 개설하고 27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남공단지점은 하남산단을 비롯해 인근 평동, 소촌, 첨단지역의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지역 상공인들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라면·과자·주스…

식음료값 줄줄이 인상

라면, 스낵, 발효유, 오렌지주스 등 식음료 가격이 올들어 오름세를 타고 있다.

밀가루, 오렌지 농축액,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데다 고유가 등으로 인해 용기 제조 비용과 운반 비용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업체들은 설명했다.

27일 유통·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다음달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등 주요 라면과 스낵 제품 가격을 50-100원씩 평균 7.4% 인상할 예정이다.

신라면 가격은 600원에서 650원으로, 짜파게티는 750원으로 각각 8.3%, 7.1% 올라가고 새우깡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양파링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16.7%, 14.3% 인상된다.

한국야쿠르트도 다음달부터 발효유 '윌'의 소비자 가격을 출시 7년만에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10% 올린다.

롯데칠성은 다음달부터 델몬트 콜드(950㎖)를 2천350원에서 2천600원으로 10.6% 올릴 계획이며 웅진식품은 최근 '자연은 365일 오렌지 주스(1.5ℓ)'를 종전보다 22% 비싼 3천50원에 판매하고 있고 해태음료도 '썬키스트 오렌지주스(1.5ℓ)' 가격을 14% 올렸다.

생수와 콜라 가격도 오름세여서 농심은 지난달 삼다수 0.5ℓ 병 출고가를 8% 올렸고 코카콜라도 올 초 제품 가격을 7-9% 인상했다.

매일유업도 까페라테 가격을 지난 1997년 출시한 이래 처음으로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20%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음료 뿐 아니라 중국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황동 등으로 만든 쓰레기통, 냄비 등 생활용품 가격도 인상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中企 장기근로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주거안정을 위해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주택특별공급 사업을 올해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사업적용업종을 제조업·부가통신업 등 6개 업종에서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 등 20개 업종으로 확대·실시하며, 추천순위 평가기준 중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을 삭제해 희망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지원대상 주택은 주택공사나 지자체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민간건설주택 중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인 주택으로, 올해 광주·전남지역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107호를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청(062-360-9142)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